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9호 【루게 제24732호】 주제103(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룡해동지, 황병서동지, 서홍찬동지, 한광상동지, 리재일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5월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군

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온 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와 공장의 당원들, 근로자들, 련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결사판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1년사이에 방대한 공장현대화사업을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몰라보게 변모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정말



원림룩화도 잘되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팎으로 일색인 멋쟁이 공장, 로동당시대의 본보기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보위, 인민보위, 제도보위의 제일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급식시킬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이렇게 훌륭히 현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소,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도록 기쁘오, 이런 멋에 혁명을 하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이 우리나라 식료공업의 기술개선을 추동할수

멋있다고, 결만 보고서도 현대적인 식료공장이라는것이 알린다고, 공장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다고, 인민군대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식료공장을 가지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이 우리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됨으로써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늘 마음쓰시던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지휘

정보실, 과학기술보급소, 종합가공직장, 기초식품직장, 빼다직장, 당화직장, 포장재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가 훌륭히 실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공장현대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제품생산, 품질관리, 업무활동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통합생산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한것이라고 하시

면서 규모에 있어서나 지능화, 정보화수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고기통출입생산공정, 된장 및 간장 생산공정, 빼다생산공정 등을 자동화, 무인화한 결과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는 생산공정들에서 손로동을 없애고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률을 훨씬 높이였으며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을뿐아니라 식료품들의 색깔과 맛, 질도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있는 공장답게 변모되었다고 하시면서 다른 식료공장들에서도 기술개선을 할 때 이 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현대화기준을 바로 정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과학기술력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변시켰다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사업에 적극 기여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련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로동자문화회관을 돌아보신 다음 공장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예술소조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력력히 어린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공장로동계급의 긍지와 자부심을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목마다에 당정책이 맥박치고 공장애가 차넘치며 사상성, 예술성은 물론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기수, 틀격대가 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화된

공장을 돌아본것도 기쁘지만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공장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용모를 보게 된것이 더욱 기쁘다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배심이 든든해졌으며 큰 힘을 얻었다고,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이 있기에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웃으며 헤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5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늘 자리잡고있던 공장, 정이 가고 믿음이 가는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이 당이 바라는 수준에서 현대화되면 종업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후방사업이자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림으로써 공장에 어려있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장현대화를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고도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며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 20일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5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현지도하시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의 제약공업발전에 쌓으신 김정은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제약생산기지로 일떠선 이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조선식의 효능높은 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약품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만마TV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 구바의 프렌츠 라파나통신, 만마TV 방송,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이란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도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월 29일과 11월 1일 로씨야와 이란의 통신, 신문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인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에서 여자축구경기를 관람하시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새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에서 국가총합팀과 월미도팀사이의 여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5월1일경기장이 조선의 체육시설의 상징,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건되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5월1일경기장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 군인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카야 가제타》, 이란신문 《이란 뉴스》도 같은 소식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가 로씨야 연방을 방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가까운 시일내에 로씨야연방을 방문하게 된다.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 우즈베키스탄위원회가 8일 마슈켄트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즈베키스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연단 위원장 엘다르 라울로프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업적도론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추모 네팔위원회결성식이 7일 카트만두에서 진행되였다.

자강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대장이었던 박금산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 수여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수여식이 14일 자강도인민보안국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꾼들, 인민보안원들, 유가족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높은 희생성 발휘한 자강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대장이었던 박금산에게 수여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가훈장 제1급 그리고 애국렬사증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였다.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혁명전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내세워

주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평범한 폭발물처리일꾼이 영생의 삶을 누리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영웅으로 되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영웅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혁명의 전위물과 인민의 생명제산을 굳건히 보위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조선 외국인들의 반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참담케 이바지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목격한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빠뜨리크 무엔츠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방문하면서 참된 삶을 향유하고있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서방의 이용출판보도물들은 사회주의조선에 대하여 왜곡된 선전을 하고있다.

그것이 위위남조라는것을 직접 확인할수 있었다.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

기의 역할을 다해가고있다.

무로교육, 무상치료 등 국가적책력이 근근대중에게 돌려지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조선의 현실을 널리 소개선전하려고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 단장 하리 운토로 드라 자트는 여러곳을 돌아보고 조선의 사회제도가 인민을 위한 제도라는것을 깊이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소감을 이렇게 더듬었다.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고있으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조선의 당과 정부가 인민에게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뜨거웠던가를 절감하였다.

모든 정책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펼쳐지고있는 조선은 진정한 훌륭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통성변명할것이다.

스위스 이탈리아어지역공산당대표단 단장 알레산드로 루치니는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교무를 받았다.

조선인민은 신심과 락관을 가

지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평양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조선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슬기여 펼쳐지고있는 조선은 진정한 훌륭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인민은 이르는 곳마다에 기쁨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미래를 락관하고있는 인민,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인민만이 제힘을 믿고 일떠설수 있다.

사는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려는 애족, 애민, 애국의 높은 뜻에 합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

은 거례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일정에 올랐던 북남고위급접촉이 끝날내성사되지 못하고있다.

벌어진 연연한 현실앞에서 무거운 의욕을 안고 늦게나마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당사자는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초보적인 체면도 없이 마치 우리가 쌍방합의를 어긴것으로 하여 오늘의 결과가 빚어진것처럼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지어 우리더러 《북방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태도변화》를 보이라고 위협을 늘어놓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더 기세를 부리며 북남관계전반을 더는 수습할수 없는 전면적인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에 위임에 따라 조성된 사태의 위태로운 거버넌스에 밝히고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하기로 하였다.

북남고위급접촉은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령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려는 영명하신 우리 최고수뇌부의 깊은 의중에 의하여 발기되고 진척되어온 또 하나의 애족, 애민, 애국의 조치였다.

은 거례의 오늘의 운명뿐아니라 매일의 희망까지 품어안으신 이 조치에 따라 공화국체육단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가 성사되고 10월 4일에는 우리 최고위급대표단의 인척방문이 실현되었으며 드디어 역사적인 합기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귀중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합기가 이루어진 3일만인 10월 7일 서남해상열점수역에서 바라지 않던 합정소장간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에도 출고그를을 가라기에 앞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에 특사 파견에 의한 긴급접촉을 요구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깊이 새겨들지 않고 총격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고수주장에만 열을 올리며 활을 수습할 정도로 우리의 진정을 우롱해나섰지만 최대의 인내를 가지고 최후통첩식각사를 보내는 방법으로 끝내 긴급접촉에 대한 확답을 받아 낼수 있었다.

지어 특사의 《격》과 《급》을 낮추는 음모적인 방법으로 긴급접촉을 무산시키려고 요술을 부릴 때에도 그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접촉마당을 마련하여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문제들을

성의를 제안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들은 쌍방이 어떤 경우에도 서남해상의 예민한 수역, 예민한 계선을 넘지 말데 대한 문제, 고의적인 적대행위 가 아닌 이상 다 같이 절대로 선봉질을 하지 말데 대한 문제, 서로의 충돌을 야기시킬수 있는 교전규칙을 함께 수정할데 대한 문제, 아무리 불의적이고 복잡한 상황이 조성되어도 쌍방이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해결할데 대한 문제, 특히는 반공화국 배라살포행위를 남조선이 당국선에서 시급히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데 대한 요구 등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모든 문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성의가 함축된 이 모든 제안과 요구를 무릅대고 거부해나섰으며 접촉의 취지에 어긋나게 《북방한계선》고수를 위한 당치않은 논리를 강변하던 나머지 나중에는 특대형도막으로 락인된지 오랜 《천안》호 침몰사건과 저들의 선봉질에 의하여 빚어진 연평도포격전까지 꺼지면서 대결본색만 꺼리없이 드러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적대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한 외교급접촉의 진도가 위태롭게 될수 있다는것을 경고하는것으로 심각하게 번거로운 사태를 수습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원래 남조선당국이 관계개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뒤늦게라도 우리의 제안과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을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오히려 북남관계를 보다 험악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길에 들어섰다.

10월 25일부터는 전선사부와 중부를 비롯한 군사분계선전역에서 우리의 최고준엄을 합부로 모독하고 신성한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배라살포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였다.

서남해상수역에서는 《북방한계선》을 고수한다는 명목에 우리 령해에 대한 해군합동력의 침범빈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11월 10일부터는 관계개선과 고위급 접촉에 대하여 목이 쉬도록 떠들던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진면전을 기성사화한 대규모적인 북침실전연습 《호국-14》를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33만여명의 피로복, 해, 공군, 해병대

병력과 2만 3 000여대의 각종 기동장비, 60여척의 함선과 솔한 비행대를 동원하여 사상최대의 규모로 벌리고있는 이 연습은 더욱더 엄중한 단계로 번져가고있는 반공화국북침전쟁소동에 있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스스로 관계개선을 부정하고 분별없는 정치, 군사적대결당으로 일정에 올라있던 북남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고있고 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에 의하여 빚어진것은 현 북남관계의 진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명백해진 진상을 놓고 분노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의를 담아 몇가지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밝히기로 하였다.

1.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지속되는 한 북남관계개선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도 바라지 말라는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전제정당에서도 대화가 있다고 하였다.

불신과 적대감을 고수하고 대결을 추구하면서 우리와 마주앉겠다는 뻔뻔스러운 취지를 드러낸 당치않은 꾀이며, 그래서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대하여 떠들어대는것만큼 대결소동의 도수를 분별없이 높이는 이중적행태를 연출하고있는지는 모른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따위의 짓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관계개선과 대화를 바란다면 미국을 끌어들이 버리는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고 동족을 겨냥하여 벌리는 《호국-14》와 같은 실전북침전쟁소동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상, 해상, 공중으로 미국의 핵력적수단을 빈번히 끌어들이 우리에 대한 핵공갈수위를 높이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접촉을 요구하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을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연습과 대화는 쌍립될수 없다고 굳이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해왔다.

진정으로 관계개선과 대화를 바란다면 반공화국배라살포행위부터 중지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의 최고준엄을 합부로 모독하고 우리 체제를 악의에 차 위협하면서 우리와 마주앉아 보겠다는 그 자체가 침범피의 극치이다.

《표현의 자유》와 《체제의 특성》, 《법적근거의 부재》 등을 구실로 제 판관학에서 강행되는 불순한 행위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무력한 상대, 이런 당국자들과 열백년을 마주앉아야 아무것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관계개선과 대화를 바란다는 주장에 불순한 기도가 숨겨있지 않다면 지상, 해상, 공중에서도 명분없는 형형색색의 도발소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불붙어선단속을 구실로 우리 령해수역에 대한 침범회수를 늘이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뚱뚱 속내를 드러내고 군사분계선 북쪽 우리측 지역에서 진행되는 우리 군인들의 정상적인 순찰행동에 막달식 경고방송과 총격을 가해대며 의도적인 도발에 매달린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관계개선과 대화의 길에 들어서려면 그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상대로서의 모양새부터 갖추라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2. 그 누구의 《합의준수》에 대하여 력설하기에 앞서 대를 두고 북남합의를 무산시켜온 모든 악습부터 대담하게 버리라는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북남합의는 체제가 아니라 사상과 제도, 리념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이루어낸 민족공동의 진취물이며 어김없이 지키고 실현되어야 할 민족사적과제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민족앞에 서약한 크고작은 모든 북남합의들을 제멋대로 어길 권리가 없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귀중한 쌍방합의를 제멋대로 짓밟고 파괴하는것으로 북남관계를 끊임없이 악화시켜오고 있다.

일정에 올랐던 오늘의 북남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고있는 주범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분별없는 파괴행위가 《유신》의 동족대결약행에 그 부리를 깊이 두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둘이켜보면 지난 세기 70년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합의로 겨레의 가슴을 단결된 세차게 뚫어버리게 한 7.4공동성명은 《유신》독재로 악명을 떨친 대결광풍의 《6. 23특별선언》으로 무참히 짓밟힐만 하였다.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을 반영하여 북과 남이 이룩해낸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에 대하여 감히 《할것》, 《못할것》, 《나중에 할것》 등으로 제멋대로 갈라놓고 망동을 부리다 못해 《전면무효》를 신고하는 것으로 만고대죄를 저지른 리명박역도 《유신》독재자들과 일맥상통하였다.

나중에는 《천안》호침몰사건이라는 민족사상최대의 특대형도막을 남조선에게 국악무도한 《5. 24조치》로 북남관계를

플레야 풀수 없는 경색국면으로 만든것을 바로 《유신》독재를 흉내낸 리명박역도였다.

그런데 오늘은 《유신》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특대대결광풍으로 악명을 떨친 리명박역도이상이 아니라고 있다.

올해 초 북남고위급접촉때에도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심복들을 내세워 우리와 비방중상중지에 대하여 약속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달라.》, 《이제 지켜보면 알것》이라고 교활하게 놀아냈다.

예견한대로 합의가 끝나기 바쁘게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츨보》, 《독수리》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배라를 살포하며 또다시 대결광풍을 부린것이 현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은 결발된 《관계개선》과 《신뢰조약》에 대하여 떠들기 아니라 체면만 합의를 성실하게 리행하는 습성부터 배워야 한다.

지금처럼 체면에서 악취가 풍기고 계순가락에 뭇 물은줄도 모르고 그 누구의 《합의위반》에 대하여 력설해대고 그 누구의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악습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은 거례의 지란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관계개선과 대화는 진정이라면 소중한 민족적합의를 제멋대로 파괴하는 제질화 된 뿔뿔부터 대담하게 버리라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3. 관계개선이 참말이라면 남조선의 현 집권자를 비롯한 당국자들모두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게 처신하라는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집권자가 교약하면 펼치는 정치 또한 교약해지는 법이다. 웃값의 물이 흐려지면 아래값의 물도 흐려지기마련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처럼 교약한 인간이 없다는것이 세인의 일치한 평이다.

그래서 벌어진 땅은 곳마다에서 앞뒤도 가려지지 못한채 동족대결의 연동만 쏘아내지는 모른다.

《서부면 판단으로 남북관계를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북핵프로그램과 병진로선의 성공을 막아야 한다.》, 《북의 자유와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야 한다.》, 《변화를 포기할 때 북주민들의 삶을 도와 나설수 있다.》 이것이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집안에서는 물론 밖에 나가서까지 입버릇처럼 쏟아내는 교약한 망발이고 회피문명이다.

지어 얼마전에는 《대북진단살포가 북이 가장 아파하는 심리전》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앞세우면서 배라살포

를 계속 강행할 심산으로 지금까지 대북심리전용으로 리용하여온 예기불등탑의 철거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예언이 바르렀는가. 도대체 누가 결정하였는가.》고 고아대며 독기를 뿜어대기도 하였다.

얼마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의 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도 이사람저사람의 옷속에 매달려 문의회의의 가소로로 주장으로 우리의 핵과 《인권》을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하게 놀아냈다.

지금 현 집권자의 교약한 대결광풍은 그대로 수하당국자들의 악행으로 이어지고있다.

성난 민심의 제상에 내던져졌다가 하도 인물이 없는 탓에 다시 《국무총리》자리를 차지한 정홍원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와 마주앉아 그렇게도 좋은 말을 많이 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더욱더 상종할수 없는 대결광풍으로서의 문제로 드러내고있다.

지난 11월 4일에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여러 나라 대사들을 비롯한 외교사절들을 불러다놓고 우리가 《국민의 자률적인 판단으로 진행되는 전담살포》를 구실로 인척고위급접촉을 회피하고 10월 30일에 접촉하지는 저들의 제안마저 무시해버렸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북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에 단호히 대응할것》이라고 고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까지 류길재의 이러한 처사를 놓고 미국상선의 눈치, 현 집권자의 눈치, 《국정원》의 눈치를 보며 가세미칠 줄을 안다고 아우성치고있다.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현 집권자의 입만 봉인하고 당국자들이 지금의 반대로 말은 책무만 하해도 북남관계개선의 호기를 놓치지 않을것이라고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지금은 그럴듯한 미사리구나 당치않은 주장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내외여론을 오도할 뿐 아니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이 한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청와대의 현 집권자가 합부로 주절대치 말아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모두가 대결광풍에 들떠 정신없이 들어치는 추태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립장이고 주장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려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깊은 의중을 후회해 없도록 새기고 또 새겨야 할것이다.

주제103(2014)년 11월 15일 평 양

독자의 편지

친형제, 친혈육입니다

저는 평범한 영예군인입니다.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시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하면서 우리 집을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곤 합니다. 그들속에는 평안남도제진판리극 정보통신국 아레단위의 당원들과 정보원들도 있습니다. 최장신, 송명철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은 저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새라, 애로되는 것이 있을새라 늘 관심하며 성의를 다하고있습니다.

이들은 저를 자기 단위의 종업원으로 등록하고 해마다 그 성원들과 똑같이 기강용담대는 물론 명갈까지 정상적으로 보장해주고있습니다. 특히 최창선동무는 심어년동안 변함없이 저의 건강회복에 좋은 귀한 약재와 생활필수품을 마련해가지고 국가적인 기념일과 명절날은 물론 평범한 날에도 저의 집을 찾고있습니다. 색다른 음식과 신선한 과일도 생겨가며 저의 집에 들리곤 하는데 그 모습은 정말 친형제, 친혈육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음주에 진행될 빙상호케이경기들

16일 9시부터 장자산체육단과 사자봉체육단사이의 공화국선수권대회 빙상호케이

남자경기가 빙상관에서 벌어지게 된다. 14일부터 시작된 공화국선수권대회 빙상호케이 1급 남, 녀 경기가 련명전의 방법으로 빙상관에서 계속 진행된다.

제 11 차 무한국체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



제 11 차 무한국체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이 14일 귀국하였다. 11월 6일부터 6일까지 중국 무한시에서 진행된 이번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중국, 쿠바, 도이칠란드, 몽골, 에스빠냐, 폴롬비아, 핀란드를 비롯한 16개 나라의 우수한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체력교예 《그녀와 날뛰기》에 최고상인 황학금상이 수여되었다. 평양역에서 한철 문화사 부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는 예상외의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보도

최근 남조선지역에서 강행되고있는 《호국-14》북침전쟁연습과 매를 같이하여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괴뢰군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행위가 극도로 무모해지고있다.

10월 중순부터는 군사분계선 북쪽 우리측 지역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고있는 우리 군인들을 향하여 막달식 험악한 경고방송을 불어대고 총탄까지 쏘아대고 있다.

지시하고 사격태세를 갖추면서 의도적으로 우리 군인들을 자극하고있다.

11월 14일 하루동안에만도 전선사부와 중부에서 군사분계선을 따라 아군지역을 순찰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막달로 수십차례에 걸쳐 경고방송을 해대는 망동을 부리었다.

이들 앞세워 전선사령부에서는 12. 7mm 대구경기관총과 5. 56mm 자동보총사격기 탄사해대고있다.

지어 무장악당들을 내몰아 진지를 차

군사분계선 북쪽지역에서의 순찰행동은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벌리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은 예상할수 없는 보복타격을 초래할것이며 그것이 즉시 정의의 조국통일대결전으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는 위임에 따라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이 전선에서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즉시 중지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적도발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장 참혹한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제103(2014)년 11월 15일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제령군에서 체육관 새로 건설

제령군에서 체육관을 새로 일떠세웠다. 배구, 축구, 탁구, 유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와 운동을 할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은 2개의 선수대기실, 문화휴생 시설 등과 1, 2층으로 된 수백석의 관람석이 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군에서는 체육관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울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에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설계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설계를 완성한데 기초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시공조치가 선행되었다. 대중의 열의를 북돋아주는 화선 선종의 북소리가 새겨쳐 울리는 속에 일꾼들은 지체를 앞세워 보장하고 공경건제를 빈틈없이 하여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건설자들은 작업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앞선 공법들과 창의고안들을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기초초착과 콘크리트치기 등 공사를 와달라 해제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체육관건설은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전부 마무리되었다. 여러 단위들과 인민들의 적극적 지원은 건설자들의 전투적 사기를 높여주고 공사를 다그치는 데 기여하였다. 새로 일떠선 체육관으로는 군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다양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당의 전면과학기술인재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회교육의 전당

교육강습 등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식을 주고있다. 최근 버섯생선의 발전추세와 자연에너지개발리용의 발전 동향, 새로운 전기절약기술 등에 대한 과학리론강연과 과학기술강의들이 청강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인민대학당에서는 각지 관망들과 세포지구 속산기지 건설장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중요단위들에 나가 현장강의를 진행하는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또한 자료검색 등 각종 열람봉사의 정보화수준을 더욱 높여 독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